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	
		배포일자	2022년 10월 26일(수) 총 2매		
담당 부서	국제평화협력 담당관	담 당 자	• 국제회의추진팀장 전현주 ☎458-7231 • 담당자 이소윤 ☎458-7234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유정복 시장, 아시아개발은행(ADB) 총재 만나 내년 연차총회 협력 논의
- 내년 5월 송도서 개최되는 제56차 ADB 연차총회 성공 개최 및 협력 방안 논의 -

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0월 26일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접견실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(淺川雅嗣) 아시아개발은행(ADB) 총재를 만나 인천시와 ADB 간 「제56차 ADB 연차총회」 성공적 개최 방안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
이번 면담은 내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「제56차 ADB 연차총회」의 준비를 위한 주요 행사장 및 시설의 사전답사와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

ADB 연차총회는 ADB 68개국 회원국 대표단 및 금융관련 국제기구 등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다. 내년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대면행사로, ‘재도약하는 아시아: 회복, 재연결, 개혁’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.

유정복 시장은 “인천은 세계최고의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,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, GCF를 비롯한 15개의 국제기구 등 최고의 국제회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, 아시아경기대회(2014), 세계교육포럼(2015), OECD 세계포럼(2018)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.” 고 밝히며, “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이에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는 “내년 제56차 ADB 연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인천이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역량이 충분함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 로 말했다.

※ 인천시 홈페이지 포토시정에 게시되어있습니다.